

일본 개호보험제도 하에서의 저소득노인에 대한 지원책이 한국에 주는 함의

류 애 정

(일본 동양대학 복지사회디자인연구과박사과정)

2000년 4월의 개호보험제도 실시에 따라 일본의 사회복지서비스의 보편화의 확대로 빈곤자 중심이었던 사회복지대상이 전국민에게 확대되고 노인복지서비스의 제공체제의 구축이라는 면에서 장점을 가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복지의 보편화 전개에 있어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그다지 세밀하게 구축되어져 있지 못함에 따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실시 이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여전히 내포하고 있는 생활문제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어떠한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지 제도를 중심으로 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동경도 스미다구의 현황을 살펴본 후, 한국의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발전과제에 시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결과, 1. 자기부담으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저소득층이 요지원계층으로 인식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 스미다구의 경우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서, 공식자원 이외 비공식자원의 지역내 공급이 그다지 활발하지 않아 경제적 문제 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그 지원이 요청되고 있다. 3. 여성개호자에 대한 지원방안 등이 요구되고 있다. 개호의 사회화라고는 하지만 그 궁극적인 전제로서 재가에서의 생활을 권유하고 있는 개호보험제도의 앞으로의 과제로서 가정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인학대문제개호역할의 적절한 남녀분담 등 원천적인 해결방법을 찾지 않으면 사회취약계층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은 제도로 밖에 인식되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국도 개호보험제도와 비슷한 형태의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실시를 준비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이 일본에 비해 강점이라고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민간부분의 왕성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기에 정책은 정책적으로 실천현장에서는 지역사회 내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한 다양한 방면에서의 활동들이 요구되어진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들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진 제도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노동과 개호를 같이 하는 여성에 대한 지역사회 내에서의 지원체계가 필요할 것이다